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YahooFinance: 미국인들 실업률 우려, 관세 여파 전망에 크게 증가
- WSJ: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올해 미 경제 침체 절대 없다”
- CNBC: 미 기업 CEO 60% 이상, “향후 6개월 경기 침체” 예상

### [미국 금융]

- Bloomberg: 엘런 전 장관, “국채 매도세는 시장 혼란이 아닌 신뢰도 하락”
- WSJ: 대형 기술주, 월가 증시 상승세 주도

### [미 관세 여파]

- Bloomberg: 3월에 중국의 수출 규모 1천30억 불 돌파
- Bloomberg: 일본,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서두르지 않을 듯
- WSJ: 미 동맹국들, 미·중 무역전쟁에 관망 입장

### [오일]

- WSJ: OPEC, 관세 여파로 오일 수요 전망 하향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중국 도매시장에서 미국의 주문 중단
- WSJ: 애플, 관세 면제로 위기 일단 모면
- Bloomberg: 스타벅스, 매장 바리스타 복장 규정 변경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 [미국 경제]

#### **YahooFinance: Americans braced for biggest unemployment rate jump**

#### **since the pandemic as tariffs muddy outlook**

미국인들 실업률 우려, 관세 여파 전망에 크게 증가

- 미국인 근로자들의 3월 실업률 우려가 팬데믹 당시 보였던 수준에 접근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오늘 월요일 뉴욕 연준이 발표했다.
- 이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실업률이 지금부터 1년이 지난 이후 상승할 평균 가능성은 4.6 퍼센트 포인트 오른 44%를 보였다. 이는 지난 2020년 4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 향후 1년 뒤에 본인이 실직할 가능성에 대한 평균 가능성은 1.6% 포인트 증가한 15.7%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3월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연 소득이 5만 불 미만의 가구에서 이러한 수치가 가장 높았다.

## WSJ: Hassett '100% Not' Expecting a US Recession This Year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올해 미 경제 침체 절대 없다”

- 현재 일부 월가는 트럼프의 강력한 관세로 인해 경제 둔화가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그러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Kevin Hassett은 이에 대해 부인하면서 “올해 경제 침체는 없다”라고 일축했다.
- 그는 현재 강한 일자리 보고서가 발표되고 있으며 기업 CEO들이 관세 시행 상황에서 생산을 미국으로 되돌리고 있다고 말한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 그는 “현재 관세 협상과 관련해 열 군데 이상의 파트너들로부터 놀라운 제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국가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WSJ 기사

## CNBC: More than 60% of CEOs expect a recession in the next 6 months as tariff turmoil grows, survey says 미 기업 CEO 60% 이상, “향후 6개월 경기 침체’ 예상

- 오늘 발표된 산업계의 기업 3백 명 CEO들을 상대로 조사한 이른바 'Chief Executive' 결과에 따르면, 점점 많은 이들이 향후 6개월에 침체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 정확하게 62%가 그렇다고 답했는데, 이는 지난 3월에 조사한 48%의 침체 응답에서 늘어난 것이다.

CNBC 기사

## [미국 금융]

### Bloomberg: Yellen Says Treasuries Show US Confidence Loss, Not Dysfunction 옐런 전 장관, “국채 매도세는 시장 혼란이 아닌 신뢰도 하락”

- 재닛 엘런 전 재무부 장관은 최근 국채 매도세 현상은 연준의 개입이 필요한 시장 혼란이라기보다는 미 정책 결정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 그는 시장에서 유동성이 사라지는 시장 기능 문제로 보지 않고 미 정책 결정에서의 신뢰도 상실로 본다고 강조했다. 물론 그는 이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그는 현재 현상은 투자자들이 달러를 기반으로 한 자산을 기피하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미 국채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 WSJ: Tech Giants Fuel Wall Street's Cautious Comeback: Markets Wrap 대형 기술주, 월가 증시 상승세 주도

- 증시 투자자들은 무역전쟁에서 트럼프가 기술주 분야에 온건한 입장을 취하는데 베팅하면서 기술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백악관은 주요 소비자 전자 분야 제품에 대한 관세 유예를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S&P 500과 나스닥은 1.5% 이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지난주 미 안전 자산 수요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매도세를 보였던 미 국채와 오늘 상승세에 달리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 애플은 연이틀 거의 10% 급등을 보이고 있고 엔비디아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물론 대형 은행의 전략가들은 앞으로 관세에 따른 더 큰 변동성을 고객들에게 계속 경고하고 있지만, 기술 기업들에 대한 정책 완화가 이번 주 시작되는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WSJ 기사

### [미 관세 여파]

#### Bloomberg: Tariff Shock Awaits China After Trade Surplus Hits \$103

Billion

3월에 중국의 수출 규모 1천30억 불 돌파

- 미국과 중국의 무역 결별이 올해 말 이후에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3월에 중국의 수출은 크게 성장하며 거의 1천30억 불을 돌파했다. 미국의 관세 시행 전에 선제적인 수출로 인해 3월 수출 규모가 전년 동월 대비 12.4% 늘어난 것이다.
- 중국의 수출이 동남아시아로 기록적일 정도로 전환되면서 글로벌 교역 구도가 바뀌고 있다.

## Bloomberg: Japan In No Rush to Compromise Days Ahead of US Tariff Talks

일본,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서두르지 않을 듯

- 이번 주 일본과 미국의 관세 협상은 미국으로부터 관세 유예를 추진하려는 전 세계 국가들의 움직임에 첫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관련 일본 수상은 이번 주 미국과의 고위급 관세 협상 합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번 협상은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는데, 일본 수장 시게루 이시바 수상은 “서둘러서 많은 것을 타협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 WSJ: U.S. Allies Are Sitting Out Trump's Trade War With China 미 동맹국들, 미·중 무역전쟁에 관망 입장

- 미국은 대중국 무역 전쟁에서 많은 동맹국들과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동맹국들은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서두르지 않고 있다.
- 연방 재무장관은 지난주에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는 70개 국가는 중국과 대응 해서 함께 움직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중국에 현재 기술과 무역 기회를 제외 시키도록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가 오랫동안의 동맹국들과 적대국들을 차별 없이 관세를 매기고 있다는 점이다. 친구와 적을 구분하지 않고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다.
- 예컨대 유럽 연합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점차 현대 기술과 투자 기회를 막고 미국과 연합하려는 유럽의 중국 정책이 이제는 바뀌고 독자적인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 커지고 있다.

WSJ 기사

## [오일]

### WSJ: OPEC Cuts Oil Demand Outlook Amid U.S. Tariff Hit Despite Output Hike OPEC, 관세 여파로 오일 수요 전망 하향

- OPEC는 생산 확대를 결정한지 며칠 만에 글로벌 오일 수요 성장 전망을 낮췄다. 이는 미 관세 조치가 글로벌 경제와 원유 소비를 줄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 OPEC는 올해 하루 평균 원유 수요를 1백30만 배럴로 예상하며, 내년 전망치는 1백28만 배럴로 하향 조정했다. 당초에는 올해와 내년 수요를 각각 1백45만 배럴과 1백43배럴로 예측했었다.
- 한편 브렌트유는 배럴당 65불, 서부텍사스 중질유는 62불에 거래되고 있다.

WSJ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At China's Wholesale Hub, U.S. Orders Have Suddenly Halted. One Example: Socks. 중국 도매시장에서 미국의 주문 중단

-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지난 주 145%까지 급등하며 중국산의 경제적 의미 상실에 따라 세계 최대 도매시장인 중국의 YIWU에서 미국 바이어 주문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 특히 양말처럼 마진이 낮은 일상용품의 경우 가격 인하로 관세를 상쇄하기 어려워 미국에 수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 중국은 2023년 기준 미국 양말과 스타킹 수입의 56%를 차지했다. 중국은 전 세계 양말의 약 1/3을 생산하는 Zhuji 등 거대한 제조 인프라와 가격·속도 면에서의 독보적 경쟁력을 지닌다. 미국 바이어들은 다른 국가에서 대체 공급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가격 상승과 물량 부족 우려가 크다.
- 일부 소규모 중국 양말 업체들은 미국 수출 비중이 낮아 당장 큰 타격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전국적으로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 보고 있다.

WSJ 기사

## WSJ: Clouds Part Over Apple's Stock—for Now 애플, 관세 면제로 위기 일단 모면

- 애플은 중국산 전자제품에 대한 트럼프의 고율 관세에서 일시적으로 면제되며 주가가 반등했지만, 상무부 장관 Howard Lutnick이 다시 관세 부과 가능성은 언급하며 불확실성이 여전히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
- 애플은 이번 관세 면제에도 불구하고 제조 거점 다변화에 대한 압박을 계속 받을 전망이다.
- IDC 애널리스트 Francisco Jeronimo는 “미국 기술 기업들은 여전히 중국의 효율적이고 통합된 제조 생태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스마트폰·태블릿 같은 대량생산 제품의 생산지를 단기간에 다각화하려는 시도는 비용과 물류 면에서 어렵다고 지적했다.

WSJ 기사

## Bloomberg: Starbucks Sets New Barista Dress Code in Latest Change to Stores 스타벅스, 매장 바리스타 복장 규정 변경

- 스타벅스는 매출 회복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카페 외관 개선과 함께 바리스타 복장 규정을 개편한다.
- 5월 12일부터 북미 매장의 바리스타는 검정색 상의와 카키·검정·청색 데님 하의만 착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 로고 셔츠 2벌을 무상 제공한다.
- 스타벅스는 이번 개편이 매장 간 시각적 일관성을 높이고, 고객에게 더 친숙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 [보고서]

### '오락가락 관세' 달러화 5일째 하락...금은 또 최고치 달러화 올해 6% 하락, 작년 10월 이후 최저...약세 전망 비율 80% 엔화는 강세 기조 유지

미국 정부가 전자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미국 달러화가 5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달러화 약세 영향으로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달러 현물지수는 0.4% 하락했다.

달러화는 지난주에도 중국과의 무역 긴장 고조와 미국 성장 둔화 우려로 2.4% 하락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